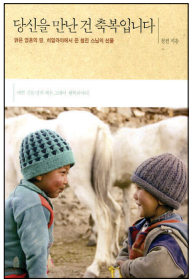


'착한 삶' 이 인류 구할 것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스님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1만3천원

지내는 인도의 푸줏간 삼형제, 이름 없는 뿌자리 노인, 라다크 순례 봉사 때마다 마주치는 눈 맑은 노승들까지, 나를 가르친 참스승은 이름 없는 민중들이었음을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책은 신학생에서 승려로, 다시 한국에서 인도로, 참스승을 찾아 10여 년을 떠돌던 청전 스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름 없는 스승들이 전하는 행복의 비밀들이다.

산을 좋아해 험한 고지를 찾아 헤매던 산사람으로서 저자의 업력은 히말라야 자락에 자리하면서 날개를 달았다. 어느 날, 겹겹 고추신을 신고 성산 카일라스(수미산)를 비롯해 히말라야 설산 연봉을 무수히 누비던 순례자의 발걸음이 다다른 곳은 라다크였다. 그곳 곱빼(짚)와 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알게 된 후 에타게 깨달음을 갈구하던 '코리안 몽크'는 사랑을 전하는 '산타 스님'으로 변신했다. 해마다 보파리장사처럼 지프차 가득 가방 여러 개를 싣고 일 년

개를 몇 개나 두 발로 넘어야 하는 여정은 매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했다. 그래서 해마다 더 이상 그곳에 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돌아오는 날부터 본능처럼 보파리에 넣을 사랑의 선물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한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나를 기다리는 욕망이 적고, 맑고 밝은 그들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그들이야말로 내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산타클로스이기 때문"이라는 저자의 고백은, 깨달음(수행)과 행복(사랑)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일깨운다.

저자가 26년째 머무는 북인도의 다람살라는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난민들의 거주지다. 그곳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행을 겪으며 히말라야 설산을 맨몸으로 넘어온 난민들의 자연이 수두룩하다.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세 비구니 스님은 중국의 감옥에서 극악무도한 성폭행에 시달리다 히말라야 설산을 넘어왔다. 그 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이상



26년째 히말라야에서 지내온 청전 스님은 히말라야를 닮은 맑고 밝은 사람의 얼굴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아냈다.



저자 청전 스님

복의 비밀을 찾아냈다. 그 비밀은 다른 아닌 '착한 삶'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었다. 어쩌면 끝 모를 욕망을 좇느라 우리가 가장 먼저 내다버렸는지 모를 '착한 삶' 속에 가장 고귀한 행복의 열매가 있음을, 저자의 참스승인 눈 맑은 영혼의 사람들이 들려준다.

저자인 청전 스님은 1972년 유신 선포 때 사회에 대한 자각으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성직자의 길을 선택했다. 신학교에서 신부수업을 받다 1977년에 송광사로 출가했다. 십여 년간 참선수행을 하다가 수행 과정에서 떠오른 의문들을 풀기 위해 1987년에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을 둘러보는 순례길에 나섰다. 그때 마더 테레사 등 여러 성녀들과 더불어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게 될 달라이 라마와 만났다. 1년간의 순례여행을 마친 뒤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1988년부터 지금까지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공부하고 있다.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지내며 달라이 라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지만, 그분 못지않은 많은 이름 없는 스승들이 나의 행복을 이끌었다. 이십년 넘게 단골로

순례길에서 달라이 라마 만나 스승으로
26년째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구도
그곳에서 깨달은 '행복' 이야기
오지마일에 선물보따리 전하는 산타
깨달음(수행)과 행복(사랑)은 하나

에 단 한 차례 길이 열리는 라다크로 여름 한 달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다. 가방 속에는 곱빼의 스님과 마를 주민들에게 전해줄 손톱깎이부터 종고 손목시계, 보청기, 돋보기, 각종 영양제와 학용품이 가득하다. 알음알음으로 눈먼 돈을 보내오는 지인들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보내주는 도움의 손길은 그동안 산타 스님을 통해 히말라야 오지 곳곳에서 기적을 낳았다. 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어주고, 가난한 곱빼에 요기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영양사 엄마소를 사주고, 사미승과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과 영양식도 챙긴다. 천 길 남떨러지 위에 아슬아슬하게 나 있는 비포장도로를 한없이 달리고, 해발 사오천 미터의 고

스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 평범한 일반 신도로 새 삶을 꾸리고 있다.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 위해 물레 국경을 넘다 양쪽 시력을 잃는 사고를 당하고 이십대 나이에 양로원에 거주하는 스님도 있다.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를 넘어온 난민들에게 달라이 라마는 "지금 여기서 착하게 살라"고 말한다. 이웃을 위한 착한 삶이야말로 행복의 요체이자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빛이라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때 묻지 않은 인간의 영혼을 지닌 민족이자 인류의 빛으로서 티베트 민족의 순수한 모습이 지금 그대로 간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티베트의 자유 독립을 간절히 염원한다. 티베트 민족이야말로 지금 여기 나의 존재가 모두 이웃의 덕분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는 마지막 희망임을 믿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달라이 라마의 제자로서 '착한 삶'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신념을 품고 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오늘도 '산타 스님'은 선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람살라 곳곳을 누비며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ul.com

일흔두 해 보내며 알게 된 이야기들

나 이대로 좋다

맹난자 지음 | 연암서가 펴냄 | 1만5천원



"이게 마지막입니다." 저자는 책을 건네며 말했다. 더 이상 책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책은 '유서'였다.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1, 2>, <주역에게 길을 묻다> 등의 저자 맹난자(사진)의 수필집이다.

"여기까지 살자고 생각했다. 일흔둘, 홀로 되신 아버지와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나이다. <중략>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되었다. 한 나무에서 봄, 가을을 일흔두 번이나 보았다.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충분히 알았다. 대지가 나를 이만큼 키워 열매 맺게 했고 시들게 하는 것, 자연의 흐름이다. 가을도 깊었다. 언젠가 떠나게 되더라도 바쁘지 않도록 준비해 두고 싶었다. 훌쩍진 원고를 정리하고 최근의 심정도 적어 두었다. 나머지는 자연에 맡긴다. 별거송이로 와서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남의 힘으로 이만큼 왔다. 부모님은 물론 지중환 스승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책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꼭 담고 싶었다. <중략> 지금 세상은 온통 단풍으로 곱다. 그걸 보고 있는 또 하나의 단풍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작가는 이제 자신을 단풍이라고 생각하고, 일흔두 해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던 숲에서의 이야기를 곁어가는 하늘에 적었다.

문단의 윗층에서 볼 수 있는 저자는 이화여대 국문과를 수료하고 연극을 하다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편입했다. 서경주, 오영수 등으로부터 사사하고 줄곧 수필 창작과 한국수필진흥에 몰두해 왔다. 그는 어린 시절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이 삶에 끼친 여파를 특별히 치려야 했고, 그대로 그녀 삶의 뼈대가 되어버린 '죽음'에 대한 의문과 견제 된다. 책은 그가 그렇게 걸어온 배움과 비움의 여정에 대한 기록으로,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관조와 통찰, 불교적 사유, 문학과 인간, 수필과 글쓰기, 그리고 법정 스님, 정창범, 김구용, 오영수, 피천득, 박완서, 홍순길 등 살아오면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풍나무가 한 잎 한 잎 가을에 물들어 가듯 적고 있다.

"요즈음 들어 더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나를 둘러싼 결핍된 사랑과 부족한 것들에 대해 그 개선을 요

구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끌어모아서 읽어라, 한 칸의 초가집. / 풀어헤치면 본래의 들판으로 돌아가라. / 바람 부는 언덕에 선 채, 나 이대로 좋다.' 어느 선사의 시구처럼 허물어져 가는 한 칸의 초가집 같은 나. 언젠가는 본래의 들판으로 돌아가라. 바람 부는 언덕에 선 채, 나 이대로 좋다."

일흔두 해를 겪은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숲에 미련이 없다. 익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낙과처럼 가을이 물들어 준 나뭇잎들을 내려 놓고 싶을 뿐이다. 글과 글 사이에서 그가 내려놓은 낙엽들이 뒹굴고 있다. 그 낙엽들은 작가가 서문에서 밝힌, "충분히 알았다"고 했던 것들이며, "여기까지만 살자고 생각했다."로 시작하는 <나 이대로 좋다>의 뼈대는 '적멸(寂滅)'이다. 충분히 알았다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작가는 '적멸'의 문고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책에 적힌 유언들은 적멸의 문을 향해 걷는 작가의 발걸음이다.

전작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와 개정판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세계 작자 모지 기행집 <인생은 아름다워라>,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1, 2>에서 작가는 이미 삶과 죽음의 문제를 문학적, 미학적, 주역과 불교문화학적 관점에서 탐색했다. 이번 <나 이대로 좋다>도 같은 줄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작가의 미학과 사상이 한층 더 집약된 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작가는 이번 글을 통해 수필이란 장르가 '불교'를 쉽고 명징하게 담기에 알맞은 그릇임을 증명하고 있다. 글과 글의 마디마다 스며있는 부처님의 생각과 가르침들이 '종교'라는 담장을 거두고 독자들의 가슴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더 이상 그의 새로운 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혹여 이후로 그의 다른 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책은 그의 '마지막' 책이 분명하다. 책 <나 이대로 좋다>는 이미 '적멸'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로 다시 그의 책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의 새로운 '첫 번째' 책일 것이다. 맹난자는 불교라는 흙 속에 깊게 뿌리내린 나무다. 그의 글은 그 나무가 키우고 피운 꽃이고 잎이다. 문하 속에 피어 있는 불교와 불교를 담은 문학을 경멸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31 ~ 11/5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8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안경애	운주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9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비움과소통
3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10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크스				
6	어려울 때 힘이 되는 8가지 명상	책 펴낸드	불광출판사				
7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출판사				

* 불서총편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보시

꿈과 노력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다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욱더 쉽게 성취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전심법해 삶의 방식과 지혜로 부자되는 방법 참회하고 노력하여 부자되는 방법 언행일치로 참 행복 얻는 방법

4가지 책을 원하시면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설산 사자봉 사자암 송암스님 010-8224-1688 전화문의하세요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이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전라도 : 011-248-6298
충청도 : 010-8674-23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산업 지붕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